

성령강림 대축일

제1독서 : 사도 2, 1-11

제2독서 : 1고린 12,3L-7.12-13

복 음 : 요한 20, 19-23

순정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
당신 일을 보내시고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강론

“때를 기다리며”

서석희 신부/도통동 성당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무리 귀하고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빨리 세상에 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조금 밀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사사건건 사실을 보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계락을 세우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머리를 잘도 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늘 동문서답하기가 일쑤이며 깨닫는 것도 너무 느려빠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답답한 소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담대한 제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던 친구들도 목적을 위해 머리쓰는 방법이나 믿음이 특출했던 쓸만한 사람들이었고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과의 단 한번 만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시도록 하였지만, 반면에 열두 제자들은 그만큼 시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 모두는 조연이고 12제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답답하고 그리고 굼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확신에 찬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힘은 성령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12제자처럼 쓰임 받았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던 훈련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서의 다른 사람들보다 문하고 답답해 보여도 결국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이 성령강림 후에는 드디어 하나씩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 그들 스스로 체질개선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딘가 모르게 더디고 굼뜨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3년동안 따라다녀도 잘못 깨달았지만 결국 성령강림 후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며 담대한 사도로 변화된 모습처럼 복음을 듣고 묵상하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안되던 것 마저 더 크게 쓰임 받는 도구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소리

꽃 보다 아름다운 젊음

지난 5월 14일에 서학동 성당에서 조성만 열사 11주기 추모 미사를 가졌다. 열사는 군부 독재의 칼날이 서술 퍼런 88년 5월 15일에 군사 정권 퇴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미국 축출을 외치며 명동성당 옥상에서 훔날리는 봄꽃처럼 몸을 던졌다. 장례식에는 수십 만 명의 조문객이 모여들어 조국 통일 재단에 산화한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봤다.

그 염원과 열기가 문익환 목사님, 임수경 자매와 문규현 신부님의 방북으로 이어져 민중들의 통일 발길을 가쁘게 하였고, 작년에는 소떼가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선이 뜨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남북한 노동자들의 축구대회가 합의되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교류와 일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 형제의 순교가 해방의 밑알이 되었던 열사가 뿌린 뜨거운 피가 남북한 교류와 화해, 일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서울에는 이미 열사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열사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전북에는 정작 추모비가 없다. 해서 몇몇 신부님과 신자들이 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 받자는 뜻에서 올 8월 15일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이 벌써 800명을 넘어섰고 8월까지 3,000명은 무난할 것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젊음과 생명을 조국에 바친 열사의 추모비 건립에 동참하는 길은 활짝 열려 있고, 이 길은 열사가 염원한 조국 통일의 길로 이어진다. [인]

순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자비로우신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게 ‘자비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 한 사람은 사루그의 야고보(+ 521)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살베 레지나(10세기)’라는 마리아 기도가 보여 주고 있듯이, 나중에 이 호칭은 유럽, 특히 중세 라틴계에 널리 퍼져나가게 된다. 음악가 로마누스(6세기 초)는 ‘자비로우신 분께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어울린다.’라고 노래한다. 증거자 막시무스(+ 66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의 자비는 단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원수요, 반역자들인 우리 위에 당신의 자비를 쏟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참으로 자비의 어머니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의 어머니...,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어머니이셨기 때문이다.”

요안네스 키리우티스(10세기 말)는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선교에서 ‘자비로우신 어머니’를 잘 요약하고 있다. “‘자비로우신 분’의 어머니께서는 자비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접대, 중재, 필요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낮게 하신 사실이 이 점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사람들을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녀를 자비로운 어머니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분 곁에서 중재자요, 화해시키는 자가 되게 하신 그분은 더욱더 자비롭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 곁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인은 계속적인 탄원을 받으시고 당신 곁에 다른 변호인, 곧 끊임없이 당신의 노여움

을 가라앉히시고 모든 이에게 당신의 자비와 배려가 미치게 하시는 동정녀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동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대해 호감과 결정적인 타고난 애정을 보여 주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1153)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에 호소하기가 두렵다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자비로우신’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려 여겨 그분께도 호소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어머니시요 자비로우신 변호자이신 마리아께 호소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듯이, 마리아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니케아의 테오파네스(+ 1381)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비이시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그러움과 자비, 존속하는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모든 자비를 당신안에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릇이시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느님의 자비로 충만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성 알폰소(+ 1787)도 어머니의 눈으로 모든 이를 향하는 마리아의 눈길에 대해 강조한다. “모든 이들이 나를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사실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가 나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그토록 자비롭도록 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이토록 자비롭고 죄인들을 돕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는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괴로움을 겪는 자는 영원히 불쌍하고 참으로 불쌍하다.”

기쁘고 온정의 대축제가 2000년 대희년까지 216일 남았습니다.

인터넷 접속요금이 할인됩니다

교구를 통해 Kornet에 가입하시면 12,000원 요금을 7,2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101명 이상일 경우에는 6,120원이 됩니다. 기존 사용자도 교구단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 교구전산실(0652) 285-00410 | 나 한국통신전주전화국 (0652) 283-0200(담당 박은선)

지역특화사업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재배 생산 추출액
마이산인진속Project
 박 준 호(암브로시오)
 안 순 정(라사라)
 주문전화 ☎ (0655) 432-4000, 2680
 전주사업소 (0652) 254-2404
 기술협력 :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속근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원 연구센터

결혼상담소
좋은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통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후) 016-607-3326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욕, 맥반석 들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궁금해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평신도 신자이면

누구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세례를 주어도 되나요?

무조건 세례를 주면 안됩니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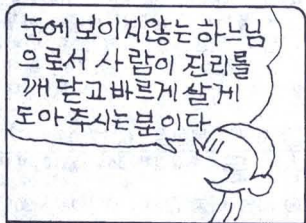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나서 물을 이마에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명을 지어줌)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세례를 주면 됩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면 조건부로 세례를 주면 됩니다.

임종 세례자가 세례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교리교육을 받고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55쪽 참조)

요심이 (1346) 김병오



교구·제 단체 소식

사제연수회 및 전례에 관한 합동 연수회

- 일시 : 5월 25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사제 연수
26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사제, 수도자, 사목회장, 기관장 및 교구 단위 제단체장, 본당 전례부장 및 전례부원 (미사 해설자 포함), 성가대 단장
- 장소 : 전주 우전성당 * 점심 드립니다

1. 전주교구 '99년 풍년 기원미사와 도·농공동체 한마당 행사

- 일시 : 5월 24일(월), 오전 11시, 주례 - 이병호 주교님
- 장소 : 천호 공소

2. 레지오 단원교육 : 5월 24일(월), 창인동 성당

3. 익산 사랑의 다리 윌레미사 : 5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창인동 성당

4. 은혜의 밤 철야기도 : 5월 28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5. 중·고 교리교사 여름연수 : 5월 29일(토)~30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6. 선택 야유회 : 5월 29일(토), 오후 2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출발, 장소 - 동물원

7. 혼인강좌 : 5월 30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 기억할 사제 : 5월 27일, 윤사물(보두네), 84주기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
 대 상 : 미혼여성
 주 제 : 향기를 심는 사람들
 일 시 : 6월 5일(토) 오후 4시~6일(주일) 오후 5시
 참가비 : 1만원
 장 소 : 전주 천호 피정의 집
 신청과 문의 : 6월 3일까지 (0652) 232-5004 평화동 성당수녀원 (042) 254-6530/6531동정 성모회

전 일 관 광
 신 혼 여 행 전 문
 금 강 산 관 광
 관광버스 대절
 조 선(안토니오)
 ☎ (0652) 288-6666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1급 정비업체
(유)서부자동차공업사
 자체검사 실시
 견인차량 주야대기
 사고차량 시내무료견인
 김 학 수(안드레아)
 김 순 덕(카타리나)
 서부우회도로(서곡교 옆)
 ☎ 211-3533/011-659-1145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문의안 해 신
 익산시정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 익산남지구 본당소식 ■

송학동 주임신부 851-5340 사 무 실 841-9713 주임신부 김태윤
F A X 856-8744 수 너 원 855-6931 사목회장 정홍일

-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되어,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 차주는 교무금 봉헌 주일입니다

1. 금주 모임 : 스승예수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① 성령기도회 - 26일(수) 미사 후
② M.E 모임 - 28일(금) 후 8시
3. 예비신자 모집 : 환영식 - 6월초 예정 * 적극적인 활동바람
4. 고리기도 : 23일 - 요골 3반, 24일 - 송하 1, 2반
25일 - 방죽목 1, 2반, 26일 - 동양A반
27일 - 평화맨션반, 28일 - 송만리 1반
29일 - 송만리 2반
5. 감사 헌금 : 김현주 10만원, 이호철 3만원
6. 사순 돼지저금통 회수 : 162세대 1,930,460원
* 봉헌하지 않으신 세대는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7. 금주 정소 : 성인들의 모후, 인자하신 동정녀
8. 금주 전례 : 해설 - 조국현, 독서 - 권기주, 이복순
9. 차주 전례 : 해설 - 강석수, 독서 - 조시근, 김현숙

□ 지난주 봉헌금 : 625,750원 □ 교무금 : 1,297,000원

신동 주임신부 854-6313 사 무 실 854-1827 주임신부 정양현
수 너 원 854-2636 사목회장 조동근

- 사랑 나눔 잔치 : 29일(토)~30일(주일) 전신자가 참여합니다 사랑, 친교, 나눔 행사의 이익금은 불우한 이웃, 신축본당, 시골공소, 북한 동포 돕기에 쓰여집니다. 사랑의 음식티켓 1장에 2,000원씩
- 오늘은 교무금, 성소 후원금, 사랑의 다리 봉헌주일 : 사제양성을 위한 돼지 저금통을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람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임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지하 2호실
② 요셉회, 정기내 월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③ 미륵산 등산모임 - 후 2시 성당 출발
2. 사제단 연수 : 25일(화), 26일(수), 우전성당
3. 여성 연합회 : 26일(수) 저녁미사 후
4. 사목회 월례회 : 27일(목) 저녁미사 후
5. 환영! 집입가정 : ① 권용준(안셀모)가정 - 청솔 2구
② 원종이(요셉)가정 - 청솔 2구 T. 857-9621
③ 박영미(테레사)가정 - 신동 3구 T. 842-8436
④ 신미정(루시아)가정 - 우림아파트 T. 842-1916
6. 금주 전례 : 해설 - 채민기, 독서 - 장한봉, 조미자 봉헌 - 소신 2구
7. 차주 전례 : 해설 - 최민기, 독서 - 임현량, 김성예, 봉헌 - 소신 3구
8. 본당 정소 : 자비의 모후, 황금의 공전,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

머양동 주임신부 833-4052 사 무 실 831-4050 주임신부 김경룡
F A X 831-4051 수 너 원 831-4060 사목회장 박기배

- 주님 승천 대축일 행사에 참여하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전건립 위한 묵주기도 : 지난주 봉헌 - 22,250단
현재 누계 - 707,809단
- 잃은 양 어린 양 찾기 운동 :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1. 주교님 사목방문 : 28일(금) - 전 10시
* 성당 대청소 - 26일(수) 10시미사 후
- 2. 사제연수회 : 25일(화)~26일(수), 전주 우전성당
- 3. 축! 여성 제65차 푸르실로 교육 수료 : 정미숙(세실리아) 김순용(세실리아) 수고하셨습니다
- 4.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전례자 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③ 빈첸시오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④ 제대회 - 27일(목) 전 10시 ⑤ 울드레야 - 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 5. 차주 전례 : 해설 새벽 - 김기원, 교중 - 강현숙
독서 - 김현수, 김보순
- 6. 신축 헌금 : 김갑기 1천만, 감사합니다
- 7. 사제양성 돼지 저금통을 아직 내지 않으신 가정은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8. 정소 : 29일(토) 즐거움의 원천 Pr., 22구역(동아 1차A.)

팔봉 주임신부 835-2977 사 무 실 835-2976 F A X 835-2976 주임신부 송영진 사목회장 소연영

- 한 가정에서 한 짐씩 선교 하기!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정성껏 봉헌 합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예비신자 교리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25일(화) 후 8시 ③ 성가연수 - 27일(목) 미사 후
- 2. 차주 모임 : ① 예비신자 교리 - 30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성서공부반, 구역장 월례회 - 6월 2일(수) 미사 후
③ 성가 연수 - 6월 3일(목) 미사 후
- 3. 성모의 밤 : 31일(월) 후 8시 * 단체 및 개인별 꽃봉헌 하실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새벽미사 없음
- 4. 제2차 사제연수회 및 전례에 관한 합동 연수회 : 25일(화) 전 10시 ~ 후 5시, 사제단 연수, 26일(수) 전 10시 ~ 후 5시, 사제단, 수도자, 신자 합동연수, 전주 우전 성당(양일모후) * 합동 연수회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사목회장, 전례부장 및 전례부원전원(미사해설자

영동 주임신부 854-2202 사 무 실 852-2240 주임신부 범영배
보좌신부 852-2274 수 너 원 852-2238 보좌신부 박상준
사목회장 황호준

- 금주 : 교무금 봉헌주일
- 1. 금주 모임 : ① 밀알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친교 체육대회
② 베드로회, 성모회, 요셉회, 안나회, 성가대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③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④ 사목회 - 25일(화) 저녁미사 후
- 2. 사제 연수 : 25일(화) - 전 6시미사, 26일(수) - 후 7시 30분미사
- 3. 유아양육 : 29일(토) 후 5시 * 신청서 - 사무실
- 4. 건전 일정 : ① 교리 - 28일(금), 6월2일(수), 4일(금), 9일(수) 11일(금), 16일(수), 18일(금), 수 - 오전 미사후, 금 - 저녁미사 후
② 예절연습 - 6월 26일(토) 후 8시
③ 건전 - 27일(주일) 공식미사 중 * 신청비 - 1만원
- 5. 전신자 성지순례(6월13일) : 23일까지 접수바람 (구역별, 레지오별) * 신청비 - 5천원
- 6. 예비신자 환영식 : 30일(주일) 공식미사 후 * 1인 1인도 합시다
- 7. 금주 전례 : 해설 - 민철기, 독서 - 이장택 부부
보편지향기도 - 서용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67,100원 □ 교무금 : 1,235,000원

주현동 주임신부 854-9030 사 무 실 855-3993 주임신부 나궁열
보좌신부 854-4673 수 너 원 857-5522 보좌신부 백수현
사목회장 정대호

- 금주 성서통독 : 유키
- 1.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51명
- 2. 예비신자 환영식 : 30일(주일) 공식미사 후
- 3. 사제연수회 및 전례에 관한 합동연수회 : ① 25일(화), 전 10시 ~ 후 5시, 사제단 연수
② 26일(수) 전 10시 ~ 후 5시, 사제, 수도자, 평신도 합동 연수 * 수요일 전 10시 미사 없음
- 4. 축! 결혼 : 23일, 12시 30분, 신랑 - 유금혜의 자 이경신(가브리엘) 신부 - 신춘순(마리아), 차경남(막달레나)의녀 신주영(아녜스)
- 5. 중·고 교사 여름 연수 : 29일~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6. 사순절 저금통 : 빠른 시일안에 봉헌 바랍니다
- 7. 초등부 은총 시상 : 30일 *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 학용품 접수합니다. 그리고 후원자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8. 익산남 지구 주님승천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 주신 신자여러분과 협조 해주신 지구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국회의원 최재승 (남중삼 요한) - 금일봉, 유남건실 오영식(메델리오) - 금일봉

창인동 주임신부 858-4722 사 무 실 858-4721 주임신부 황인규
보좌신부 858-4723 수 너 원 858-4724 보좌신부 강호준
유치원 858-4725 사목회장 문경남

-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 1. 오늘 모임 : ① 경로잔치 - 교중미사 후, 만남의 집 * 70세이상의 어르신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성모회, 성소자부모, 청소년부와 - 교중미사 후
③ 계속 형제회 - 후 2시
④ 울드레야 - 푸르실로 수감자 환영식과 병행
- 2. 주간 모임 : ① 사회복지후원 익산남지구 월례미사 - 24일(월) 10시 30분
② 레지오 단원교육 - 24일(월) 후 7시, 성당
③ 성령기도회 - 매주 수요일 후 8시
④ 제대회 - 28일(금) 11시 40분
⑤ 중고교사 여름연수 - 29일(토)~30일(주일), 나바위
⑥ 성모의 밤 행사 - 29일(토) 후 8시, 성모동산 앞
- 3. 차주 전례 : 해설 - 광영한, 독서 - 한연호 부부, 봉헌 - 중앙 2구
- 4. 사제 연수회 관계로 26일(수) 10시미사는 없습니다
- 5. 성모의 밤 행사시 봉헌할 헌화와 헌시 접수합니다 : 26일까지

□ 교무금 : 1,559,000원

- 포함), 성가대 단장 * 25일(화) 저녁미사는 있고, 26일(수) 성서 공부반과 10시 30분미사는 없습니다
- 5. 성당 정소 : 금주 - 일치의 모후 Pr., 차주 - 천사들의 모후 Pr.
- 6. 금주 전례 : 해설 새벽 - 김점순, 공식 - 김경숙, 독서 - 이희권, 김갑수
- 7. 차주 전례 : 해설 새벽 - 김경순, 공식 - 이동욱, 독서 - 문수영, 정연순
- 8. 교구제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습니다 :
① 팔봉동 - 김미숙(노엘나) 64년 2월 8일생
② 월성동 - 정옥순(마리아) 27년 9월 25일생
③ 월성동 - 유중애(안나) 20년 3월 28일생
④ 월성동 - 양현경(마리아) 70년 3월 7일생
⑤ 덕기동 - 유은주(셀마) 67년 11월 2일생
* 위 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거나 협조바랍니다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